



## 어려운 판결문, 쉽게 풀어 읽기

대한민국 법원은 판결문의 어려운 표현들을 순화하고 올바른 표현을 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판결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려운 표현, 일본어투 표현 등을 쉽게 풀어 함께 읽어볼 수 있는 카드 뉴스를 시리즈로 준비했는데요, 이번 시간에는 ‘일응(一應)’, ‘~는 외에’, ‘~에 위반하다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### 1. 일응(一應)

일단, 우선, 한번, 어쩔든 등

#### | 판결문 예시 |

특약에 관한 양수인의 선의·악의와 상관없이 채권양도는 **일응**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...

#### | 쉽게 읽기 |

특약에 관한 양수인의 선의·악의와 상관없이 채권양도는 **일단**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...

## 2. ~는 외에

명사+외에, ~고 그 외에

### | 판결문 예시 |

대법관 ○○○, 대법관 △△△의 반대의견이 있는 **외에는**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...

### | 쉽게 읽기 |

대법관 ○○○, 대법관 △△△의 반대의견이 있는 **그 외에는**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...

## 3. ~에 위반하다 ‘위반하다’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‘~을/를’ 을 사용

### | 판결문 예시 |

이 사건 임금산정표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**위반한**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
### | 쉽게 읽기 |

이 사건 임금산정표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**위반한**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
(출처/법원사람들)